

八 cm — 一·九 cm。

橫城 中金里 雙塔과 新垈里 石塔

— 橫城佛蹟 其四 —

鄭 永 鎬

一、中金里 東·西 三層石塔

甲川面中金里塔洞(俗稱 塔동지) 四八四番地 李文善氏宅(三七歲) 앞 발가운데 東·西로 三層石塔이 一基, 遺存한다(兩塔의 거리는 八 m 인) 東塔은 오래전부터 倒壞되어 塔材가 附近에 散亂한데 西塔은 各部에 多少의 磨損은 있으나 三層屋蓋까지 比較的 完形에 가까워서 全體의 規模나 樣式 및 手法 等을 알 수 있다. 西塔의 各部를 實測한바 規模가 같고 同一한 塔이므로 여기에 爲先 西塔에 對하여 略述코자 한다.

全高約 五 m 로서 二層基壇인데 上層中間部까지 埋沒되어 있어서 下層까지 除土 및 雜石의 除去作業을 하여 그 構造樣式을 알 수 있었다. 下層面石은 各面 二枚로 되었으며 中央에 撐柱 一柱와 兩隅柱가 整然히 刻出되었고 下甲石上面에는 四分圓의 물딩과 角形받침으로 上基를 받고 있다. 上基面石各面은 一柱의 撐柱로 兩分하여 二軀씩 坐像의 八部神像을 陽刻하였는데 各面石은 一枚 或은 二枚石으로 짜여져 있어 都合四枚가 넘는다. 上甲石은 四枚石으로서 副椽이 있고 上面에는 角形二段의 받침으로 塔身을 받고 있는데 各層塔身은 一石씩이며 隅柱가 刻出되었다. 屋蓋石 받침은 五段式이고 上面에는 二段의 角形받침으로서 그 위의 屋身을 받고 있는데 三層屋蓋上面에는 徑一·一 cm、深一五 cm의 擦柱孔이 있으며 落下된 露盤에는 徑一〇·五 cm의 圓孔이 貫通되었다. 落水面이 平薄하고 轉角의 返轉도 輕快한 편이며 各層에 遞減도 있어서 全體의 平均衡잡힌 雅淡한 塔이다. 屋蓋 및 落水面과 各層받침 手法 等은 奉化郡 春陽面 西洞里의 東西三層石塔과 同一한 系統이라 하겠는데 이런 點으로

보아 이곳 雙塔의 八部神像의 彫刻手法 이나 各部材의 짜임 이 주는 印象이 新羅下代로 推定케 한다.

倒壞된 東塔의 各 部材는 大部分 現場 原位置에 殘存하나 그中 初層塔身이 約 六〇 m 떨어진 東北 方밭에 옮겨져 있고 上基面石(八部神像) 이 洞里石橋로 使用 下基面石이 民家の 장독대 등으로 쓰여져 있는데 이 部材 들은 모두 收拾될 수

있으므로 原形의 復原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西塔도 埋沒部分을 整理하여 貴重한 雙塔의 一貌를 보았으면 좋겠다. 法堂址는 一部가 竅이 어 民家가 들어섰으며 그外 地帶도 모두 民家와 耕作地로 되어있어 다 른 遺構는 全히 調査할 수 없는데 다만 石塔의 南쪽이 傾斜되어 있어 이곳이 過去 石築址가 아니었던가 짐작된다. 이곳 石塔에 對하여는「朝鮮 寶物古蹟調査資料」五二九頁에 보이는 데 여기에 一基만이 記錄되어 있으며(註) 雙塔이라는 것은 全히 알려지지 않다. 竹嶺以北 江原道地方 에 아직 雙塔의 類例가 發見調査된 바 없는데 이렇듯 貴重한 遺蹟을 早速히 復元하여 保護하는 當局의 施策이 時急하다 할 것이다. 實測値는 西塔(cm)……塔身高 一層八五 二層二九 三層二四 幅 一層九四 二層八四 三層七三 屋蓋長 一層一六五 二層一四五 三層一二四이다.



(註) 「四重方塔ニシテ高サ十三尺 最下ノ塔柱ニ佛像彫到シアリ稍完全ナルモ少シク傾ケリ」라 있다.

二、新岱里三層石塔

甲川面 新岱里의 鳳腹寺入口의 俗稱「질등」이라는 山麓발가운데 高約 5m의 石塔一基가 遺存한다. 現地洞民들의 말에 依하면(沈相雲五三歲、金炳善三〇歲、兩氏談) 現鳳腹寺의 原位置가 바로 여기였다고 傳한다는 바 이말 一帶가 寺址로서 隣近에는 瓦片이 散存하며 石塔南方에는 高三m의 언덕이 約四〇m 길이로 되어있어 過去の 石築으로 짐작된다. 石塔은 現在 三層屋身까지로 三層屋蓋와 同위 露盤이 떨어져 있으며 基壇下部는 埋沒되어 있어서 그 以下를 알 수 없다. 現露出部分의 基壇面石은 四枚로 짜여있고 撐柱는 없으며 甲石은 二枚石으로 되었는데 二段의 副椽이 있어 注目되었다. 甲石上面에는 받침이 없 이 平坦하여 그위 塔身을 받고있는데 初層塔身은 二石으로서 縱으로 結構되었고 그外는 一石이며 各塔身에는 兩隅柱가 整然히 刻出되었다. 各屋蓋石은 받침이 五段씩이고 上面에는 二段의 角形받침으로 그위 屋身을 받고 있다. 落水面은 平薄하나 傾斜는 平이 없고 轉角 四隅마다 風磐裝飾이 附着되었었던 小圓孔이 있으며 轉角의 返轉도 적은 편이어서 全體적으로 보아 輕快하지는 못하다. 落下된 三層屋蓋石上面에는 徑一二cm 深一〇・五cm의 椽柱孔이 있으며 露盤에는 徑一二cm의 圓孔이 貫通되어 있다. 基壇部나 落水面等 各部手法으로 보 아 年代는 麗代로 推定된다. 이 石塔에 對한 記錄은 「朝鮮寶物古蹟調查資料」五二九頁에 보인다.

實測值(cm)는 塔身高 一層 八六 二層 三三・五 三層 二八 幅 一層 九〇 二層 七二 三層 五七・五.

屋蓋長 一層 一四七 二層 二二〇 三層 一〇〇이다.

(一九六三年 八月二日 調査).

公州 西穴寺址와 遺物

金 永 培

公州邑에서 西쪽으로 約一・五料쯤 가면 日落山이 우뚝 솟은 中腹에 東向하여 石窟이 있고 石窟에서 南쪽으로 約百m쯤 내려 가면 寺址가 남아 있는데 東國輿地勝覽 公州編 佛宇條에 「西穴寺在望月山」이라고 記 錄된 西穴寺가 바로 이 寺址인 것이다. 公州 附近에 遺存한 百濟時代 寺 址는 大部分石窟을 利用하여 窟院修行한 痕跡을 찾아 볼 수 있는데 其 中에서도 大規模의 石窟이 西穴寺와 南穴寺이다. 그런데 이들 石窟寺址 에서 百濟時代의 遺構나 遺物等의 檢出은 대단히 稀少하여서 百濟時代 에 開山된 寺址라고 斷定하기가 매우 어려운 形便이었으나 最近에 西穴 寺址에서 「西穴寺」在銘瓦片、百濟蓮華文瓦當等을 비롯하여 新羅統一期、 高麗期의 各種瓦類가 發見되었고 石窟의 入口 築臺 또는 附近에서 出 土된 石塔部材等 種은 資料를 얻을 수 있었다. 昨年踏查時에는 金堂址로 推定되는 곳에 民家가 二棟 자리 잡고 있었었는데 塼에서 出土된 七個의 礎石을 한데 모아 놓은 것이 있었다. 이미 原位置를 떠났음으로 原狀態 를 把握할 수 없었으나 西穴寺址에서 多數의 礎石이 發見되기는 처음 일 이었다. 西穴寺址를 爲始하여 公州 附近에 遺存한 百濟時代 各 寺址에 서 瓦當等 重要한 資料가 過去 日本人에 依하여 多數 收拾되었던 모양 이나 全部 私有化되어 博物館에는 한쪽도 남아 있지 않다. 公州 附近의 百濟寺址로서 石窟을 具備한 몇 곳 中에서 于先 西穴寺址의 礎石을 들 어 簡單히 記錄을 남기고자 하는 바이다.

一、寺址

日落山 中腹에 東向하여 傾斜된 山地를 階段으로 均地하여 大畧三 段階로 築臺를 쌓아서 建築物을 造營하였던 것으로 推測되는데 第一段 의 幅이 約十五m、第二段이 約二十m、第三段이 約二十五m로 區分